

2011

의료봉사 _ 몽골 2차 2011. 9. 3~10

광막한 초원이 끝없이 이어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삶 너머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또한 모진 고생을 무릅쓰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은
시대를 떠나서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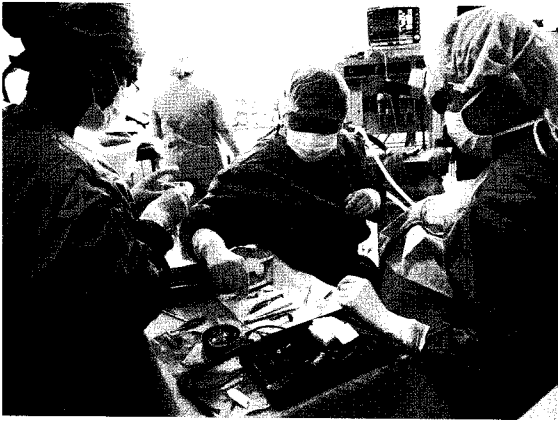
김태경 레오
서울성모병원 안과 전공의 4년차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칭기즈칸 국제 공항이었다. 외국인을 처음 맞이하는 공항도 그렇지만 면세점에 보이는 보드카도 그 이름이 칭기즈칸이며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기념품도 칭기즈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드물었다. 몽골인들은 칭기즈칸을 세상 다른 곳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무력으로 타인을 굴복시키는 일도 타인과의 소통의 범주에 들어가는 지는 의문스러웠지만 적어도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울란바토르와 목적지인 다르항을 잇는 외길 도로 양쪽으로는 광막한 초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초자연적인 장엄함을 연출하고 있었고, 전통 주거 천막인 게르가 그러한 초원 곳곳에 따개비 처럼 눌러 붙어 있었다. 이런 자연 환경을 매일 접한다면 어쩌면 세상을 정복해 보이겠다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모든 말은 통역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르항 제1병원에서의 일은 서울의 병원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술 전 검사, 수술 어시스트, 수술 전 마취... 그러나 그 느낌은 낯설었다. 마치 여기 몽골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분위기와 느낌은 색다른 것처럼.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 앞에서 줄도 서지 않고 진료실 앞을 가득 채운 몽골 사람들은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멀었



◀ 수술방 무영등
(Operating-Surgical
Light) 설치 후



지만 해맑은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의 너머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낯선 체험이었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일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와 보니 오히려 내가 해 오던 일의 진정한 의미가 보다 똑바로 보인다.

마지막 날은 울란바토르 시내를 관광할 수 있었다. 이태준 열사라는,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몽골에서 왕의 주치의까지 하면서 독립 운동을 하신 분의 기념관을 다녀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시대가 바뀐 지금 피부에 절절히 와 닿지는 않는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삶 너머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또한 모진 고생을 무릅쓰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은 시대를 떠나서 감동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귀국해서도 이곳 몽골에서 느꼈던 낯선 느낌을 생생히 간직한 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계속 돌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